



08-04 (통권 182호)  
2008.01.25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FRB 기준금리 3.5%로 인하
-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압력 가중

## 경영 노트

- 2008년 국내 IT서비스 업체의 경영 키워드

## 사회 트렌드

- '휴대전화 소설'의 시대

## 저널 브리프

- 일본, 국가적 기술보안 강화

## 洗心錄

- 파산(破産)과 성장(成長)

## □ FRB 기준금리 3.5%로 인하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경기 침체와 최근의 글로벌 증시폭락에 대처하기 위하여 1월 22일(현지시각)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4.25%에서 3.5%로 인하함
  - 또한 FRB는 향후 경기전망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금리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자산상각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등 미국경제의 침체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 FRB의 금리인하에 동조하여 캐나다 중앙은행도 정책금리를 0.25%p 내렸으나,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은 인플레이 우려로 금리인하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압력 가중

- 미 FRB의 금리인하로 인하여 그동안 국내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 금리인하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유동성을 고려해 정책금리 동결조치를 취해 온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글로벌 금리인하 움직임과 이로 인한 내외 금리차 확대, 미국경제 둔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폭 등은 국내 물가불안 우려를 이유로 긴축기조를 유지해 온 한국은행의 운신 폭을 더욱 좁히고 있음
  - 특히 미 FRB의 금리인하에 유럽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도 강해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서브프라임 여파로 국내경기가 둔화될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한국은행은 그동안의 긴축기조에서 벗어나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음

□ 2008년 국내 IT서비스 업체의 경영 키워드

- 올해 국내 주요 IT서비스 업체의 핵심 경영 키워드는 신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확대에 요약 가능함
  - 삼성 SDS와 LG CNS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POSDATA는 투자형, 선제안형 사업 발굴을 경영 방침으로 채택
  - 삼성 SDS는 글로벌 톱 10 진입을, LG CNS는 선도 해외 사업자로서의 도약을, SK와 POSDATA는 글로벌 경영 확장을 경영목표로 설정
- 국내 주요 IT서비스업체들은 최첨단 IT 관련 서비스 이외에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회사를 지향
  - 삼성 SDS는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를, SK C&C는 전자정부, 금융, 통신 분야의 IT 서비스를, POSDATA는 컨버전스 사업모델 개발에 주력
  - LG CNS는 분야별 최고 컨설팅 역량을 가진 글로벌 전문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컨설팅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

<국내 IT서비스업체의 경영 방침과 주력 사업>

기업	경영 방침	주력 사업
삼성 S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링 아웃소싱</li> <li>· 신 성장동력 발굴</li> <li>· IT인프라 운영 혁신</li> <li>· 해외사업 적극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베디드 소프트웨어</li> <li>· 생산설비 제어</li> <li>· 매니지드 프린팅 서비스</li> <li>· 고성능 컴퓨팅 지원서비스</li> </ul>
LG C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와의 협력관계 강화</li> <li>· 전문역량 강화</li> <li>· 신성장동력 발굴</li> <li>· 해외사업 성과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영상시스템사업</li> <li>· U-시티사업</li> <li>· 종합컨설팅 사업</li> </ul>
SK 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서비스 지원부서 신설</li> <li>· IT서비스 노하우를 해외시장에 접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관련 시스템 분야</li> <li>· 유비쿼터스 분야</li> <li>· 전자정부 분야</li> </ul>
POSD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형, 선제안형 사업 발굴</li> <li>· 글로벌 사업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버전스형 사업모델</li> <li>· 시스템 장비</li> </ul>

- IT서비스 사업은 첨단기술 확보만이 살 길이므로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첨단기술을 무기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함
  - IT 관련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첨단기술의 응용력을 높여야 함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업체들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서비스 성공 경험을 해외에 접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 ‘휴대전화 소설’의 시대

-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 휴대전화로 다운받아 읽는 ‘문자메시지 소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뉴욕타임스는 일본 문예전문지 ‘분가쿠카이’(文學界) 등을 인용, 21일 일본 출판계를 뒤흔든 ‘게이타이(휴대전화) 소설’ 붐을 전함
  - 지난해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 10종 중 5종은 휴대전화에서 출발해 서적으로 재출간된 게이타이 소설이었음
-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해 말 발표한 문예부문 베스트셀러에서도 1~10위 중 4권이 게이타이 소설로 나타남
  - ‘미카’라는 필명의 게이타이 작가는 ‘고이조라’(戀空)와 ‘기미조라’(君空)라는 작품으로 아사히 베스트셀러 1, 3위를 차지했고, 이 두 소설은 하드커버 책으로 재출간돼 총 300만 부가 팔림
- 게이타이 작가들은 대개 만화적인 어법과 문자전송에 익숙한 10대 후반~20대 중반의 여성들임
  - 린(21)이라는 여성작가는 지난해 소꿉친구 남녀의 사랑을 그린 ‘만일 너라면’이라는 소설로 히트를 쳤는데, 이 작품은 책으로 나와 40만 부가 팔림
  - 린은 전철 출퇴근 때나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쓴다고 함
- 게이타이 소설은 2000년 ‘마호노 이란도’(마법의 e랜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작됐음
  - 작가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 사이트로 작품을 전송하고, 독자들은 역시 휴대전화를 통해 소설을 다운받아 읽음
  - 문학평론가들은 이런 소설들의 문장 수준이 형편없고 구도도 천편일률적이라며 혹평하지만, 기존의 소설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평함
  - 네티즌·엄지족들의 감수성에서 태어난 게이타이 소설은 어느새 기존 출판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함

## □ 일본, 국가적 기술보안 강화\*

- (현황) 기업의 기술 유출은 곧 국가 경쟁력의 위협이라고 느낀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기술유출 방지에 큰 힘을 쏟고 있음
  - 일본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을 기술유출로부터 보호하려 하고 있고 일본기업은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호응해 자체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기술유출 대응 전략)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기술유출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관련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술정보 적정관리법 : 기업의 비밀 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 정보절도죄 조항 : 기업에서 영업적으로 중요한 기술 정보 등을 의도적으로 입수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만 적발돼도 처벌
  - 비밀특허제도 :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해 기업들의 중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
  - 기업의 M&A규제 강화 :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투자할 때 관계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추가로 137개 품목을 지정하고 관계 당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면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
  - 기업들의 사내보안 강화 : 히타치는 사내 모든 PC를 네트워크 단말기로 교체, 샤프는 첨단 LCD 가공 기술 열람 범위를 극소수 임원으로 한정하고 기술유출을 우려,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 블랙박스 전략을 사용
- (시사점) 국가의 기술유출은 곧 국가 경쟁력의 위협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일본을 보며 우리나라 또한 기술유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우리나라는 IT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의 핵심산업 부문의 기술유출 증가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핵심산업 기술이 유출 될 경우 예상 피해액은 185조 6천억 원이라고 함

\* 이 글은 『한경Business』(2008.01.2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파산(破産)과 성장(成長)

전세계 경제가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몸살을 겪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신용도가 낮은 소득층에게 금융권에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좋은 공립학교에 보내려고 무리하게 주택대출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연유로 미국에서는 자식은 물론 버젓이 정규직 직장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의 중산층 가정들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2년에 불과 245명만이 파산의 면책 결정을 받았던 것이 2007년에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개인채무자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45% 가량이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며, 사업자금과 생활비 확보를 채무 증가의 주요 사유로 꼽았다.

개인의 사치와 낭비가 아닌 자신의 가정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파산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용 기회를 확대하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등으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과시를 위한 동기가 아닌 건전한 이유에 의한 파산을 사회적으로 손쉽게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여건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파산 기회를 늘리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파산 선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뒷받침으로 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더욱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증대되고 있는 파산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이 많아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가? 파산을 성장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 없는 기독교와 같다.”**  
**(Capitalism without bankruptcy is like Christianity without hell.)**

프랭크 보먼(1928~ ) : NASA 우주비행사 겸 前 이스턴항공회사 CEO